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축하 영상메세지】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120년 전, 선조들의 고귀한 헌신에 경건한 마음을 올리며, 그 의미를 널리 알리는 기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모순된 사회 질서와 외세의 침략에 맞섰던 우리 민중의 각성이었으며,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마중물이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사회가 사람이 하늘인 사회가 아니라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천도교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며,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서 사람이 다시 하늘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 무엇보다 큰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라는 이 자리의 의미는, 선조들의 값진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고, 민족의 공존과 번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남수 교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사람이 하늘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향기로운 길에 모두가 함께 나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창)